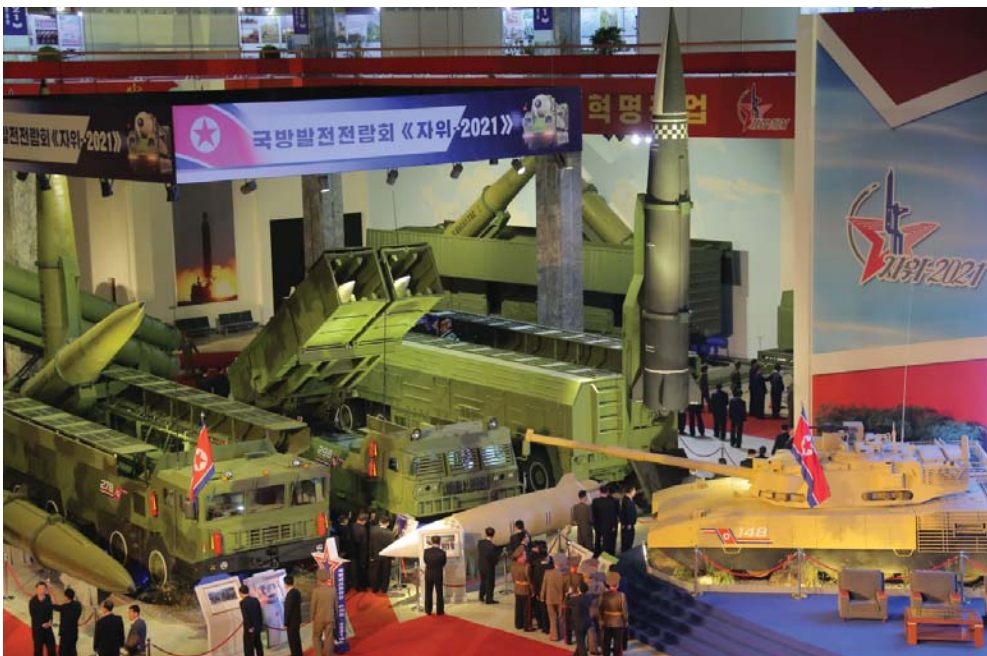


민족사에 특기할 기적적승리를  
안아오신 불멸의 업적

# 위대한 새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 시대를 열어놓으신 불멸의 업적



새로운 주제100년대가 시작되어 지나온 10년. 반만년민족사에 순간이라고 할수 있는 이 나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곁싸이는 만년시련을 헤치시며 위대한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열어놓으신것은 력사와 민족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공적이다.

조선로동당이 력사의 온갖 도전을 파감히 맞받아 인민을 위하여 일심전력하고 자체의 힘을 완강히 증대시킨 결과로써 탄생한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

인민을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내세우고 인민의 요구와 이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며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하여 전진하는 국가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강국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운 주제100년대의 첫 기슭에서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인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정식화하시고 당과 국가활동전반을 인민에 대한 봉사부대로 일관시키시였으며 모든 사업을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첫자리에 놓고 진행해나 가도록 하시어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공화국의 공고한 정

치공토, 국공으로 확고히 확립되게 하여주시였다.

폭압에 드시였다가도 인민들생각에 다시 일어나시여 새로운 구상을 펼치시고 조국땅을 주름잡는 야전차의 속도마저 더딘것같아 만리창공의 하늘길에도 오르시며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에 의해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행복의 별칭지, 사회주의선경들이 솟아올랐고 사회주의만세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높이 울려 퍼졌다.

국가의 강성과 번영은 가장 투철한 민족자존의 정신과 자력자강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성취될수 있다.

민족자존과 자력자강, 이것은 창건되어 70여년간 무수한 시련과 난관을 맞받아 물리치며 기적적승리를 떨쳐온 공화국의 자랑찬 전통이며 천만인민의 심장속에 깊이 새겨진 고귀한 진리이다.

인민은 깊은 추억을 안고 우러른다.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과적발사와 관련하여 마려하신 뜻깊은 자리에서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공화국을 온 세계가 우러러보는 천하제일강국, 인민

의 락원으로 일떠세우실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피력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한 영상을.

민족자존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으며 자력자강에 민족의 부흥과 나라의 번영이 있다는 신념과 의지를 지니신 절대위인이시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도 오늘 우리가 믿을것은 오직 자기의 힘밖에 없다고, 자력자강의 정신을 가져야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나갈수 있으며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또한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자!》, 《자력자강의 기지높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라는 신념의 구호를 인민들의 심장속에 깊이 심어주시며 천만인민을 자력자강의 투사들로 키워주시였다.

어느때, 어느곳을 찾으시여도 이 땅의 자원과 기술로 만든것이라든 그리도 기뻐하시며 자력자강제일주의를 더 높이 들고나가도록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시

경애하는 원수님.

참으로 자체의 힘을 완강히 증대시켜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확고한 결심과 현명한 령도아래 하늘에서는 우리가 만든 비행기가 날고 땅에서는 우리가 만든 무케도전차와 궤도전차, 땅속에서는 우리가 만든 지하전동차가 달리는 자랑찬 현실이 펼쳐지고 나라의 곳곳에 지식경제시대의 본보기공장, 표준공장들이 일떠섰으며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문명을 보여주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오른것이 아닌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는 국가의 존엄과 지위를 높이기 위한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의 결사적인 투쟁의 결과로 탄생한 새시대이다.

그 누구도 넘볼수 없는 강국을 건설하려는것은 반만년민족사의 숙원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불과 몇해사이에 건국 이래 가져보지 못하였던 막강한 국방력을 떠올리실으로써 이 숙원을 풀어주시였다.

최악의 도전을 이겨내야 하는 시련의 길, 지어 회생까지 각오해야 하는 병진

의 험난한 길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과 민족의 운명이 자신의 어깨에 놓여있다는 숭고한 사명감,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 조국을 강대하게 만들겠다는 사생결단의 의지를 지니시고 완강히 헤쳐오시였다.

그 나날에 《3.18혁명》, 《7.4혁명》, 7.28의 기적적승리, 《11월대사변》과 같은 민족사적사건들이 련이어 이룩될수 있었고 공화국의 종합적국력과 전략적위상은 최상의 경지에서 빛나게 되었다.

지난해 10월 공화국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성대히 진행된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은 새롭게 부상한 전략국가의 위상과 눈부신 전망을 만천하에 보여준 일대 국력시위로 되었다.

진정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위협하는 력사의 흑독한 격난들은 격감히 맞받아 인민의 삶과 행복을 지켜주시고 국가의 존엄과 지위를 비상한 높이에서 빛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어 반만년민족사의 가장 긍지스러운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가 열려지게 되었다.

본사기자 배영일



## 민족단합과 통일의 길로 이끄시여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제78(1989)년 여름 어느날 공화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교포 인사들을 만나주시였다.

한집안식구가 만났는데 집결은 무슨 집결인가고 하시며 일행모두를 식탁으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에게 일일이 술을 권하시며 건강을 축원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동포애적이고 화기애한 가정적분위기속

에서 그들과 담화를 나누시였다.

한없이 인자하고 소탈하신 품모와 해박한 식견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의 인품에 매혹된 해외교포인사들이 기쁘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감사의 인사를 올리려 하자 그이께서는 손을 저어 만류하시면서 나는 식탁에서 그런 말을 듣는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어서 많이들 들라고 권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잔을 들자고, 모두 건강하라고, 건강해야 민족의 통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수 있다고 다시금 그들의 건강을 축원하시였다.

은분들이야말로 해외조국통일운동의 원로이고 선각자라고 하시며 그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였다.

그가 장군님께서 분초가 새로운 국사를 미루시고 무상의 영광을 베풀어주시는데 대하여 영구한 마음을 금할길 없다고 말씀 올리자 그이께서는 조국통일보다 더한 국사가 어디에 있겠는가, 통일성업의 길에서 함께 손잡고 나가자고 하시면서 그의 손을 다시금 따듯이 잡아주시였다.

본사기자

## 통일운동사에 새겨진 감동깊은 이야기들 음악을 해도 민족과 통일에 이바지하도록

민족사에 이름을 날린 예극적인 제사나 명사의 뒤에는 그를 바른길로 이끌어준 스승이 있는 법이다.

세계적인 음악가로 명성을 떨친 윤이상선생에게도 참된 조국을 알게 하고 음악으로 민족과 통일에 이바지하도록 이끌어 주신 위대한 스승이 있었다.

그 스승은 과연 어느분이신가. 이 물음에 대답을 주는 한장의 사진이 있다.

윤이상선생이 창작한 교향곡을 몸소 보여주시며 그와 담화를 나누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자애롭고 열정적인 영상이 담겨진 사진이다.

돌이켜보면 어려서부터 음악에 천성적인 소질을 가지고있던 윤이상선생은 보통학교 3학년때 사범학교를 나온 짧은 음악선생에게서 음악의 기초를 배우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일본과 프랑스, 도이쉴랜드에서 음악공부를 하였다. 그

나날 그는 세계적인 작곡가로서의 재능을 갖추게 되였으며 그가 작곡한 음악작품들은 세계음악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국땅에서 윤이상선생이 만난 스승들은 그에게 음악적 재능을 가르쳐줄수는 있었어도 음악으로 조국을 빛내고 음악으로 민족에게 이바지하는 참다운 인생을 살도록 이끌어줄수는 없었다.

더욱이 자기가 태어난 남조선 사회에서 《간첩행위》를 하였다는 죄명을 뒤집어쓰고 무기징역이라는 종신형을 언도받았을 때 윤이상선생은 허탈감을 금할수 없었다.

철창속에서 그가 창작한 첼로협주곡에는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완전히 고독한 신세로 절망과 비관, 죽음의 벼랑끝에서 헤매이지 않으면 안되던 그의 비참한 처지가 비겨있었다.

음악으로 노래할 조국이 없는 것 바로 이것이 그의 아픔이였고 민족을 위해 어떤 음악을 창조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줄 스승이 없는것이 윤이상선생의 고통이었다.

선생의 이런 아픔, 이런 고통을 헤아려주시분은 바로 위대한 김일성주석이시였다.

주체68(1979)년 10월 윤이상선생을 만나주신 그이께서는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은 간고하고 어렵지만 우리가 투쟁을 잘하면 얼마든지 실현할수 있다고 하시며 통일과 관련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해주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를 예극지사라고 불리우시며 분렬된 조국의 아픔을 잊지 말고 통일을 위하여 헌신하도록 적극 고무해주시였다.

그후 윤이상선생을 또다시 만나주신 그이께서는 그가 창작

한 교향시곡 《광주여 영원히》가 아주 좋은 작품이라고 하시며 남조선청년학생들의 예극적투쟁을 고무추동하는 작품을 비롯하여 우리 민족과 통일에 이바지하는 다양한 주제의 곡을 더 많이 창작할데 대하여 이르시였다.

또한 주제79(1990)년 10월 어느날에는 그와 함께 오찬을 하시며 윤이상선생은 우리 민족이 아끼는 재간둥이이며 선생처럼 예술분야에서 귀한 사람이었다고 건강관리를 잘하여 민족을 위해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여야 한다고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런 믿음과 사랑이 있어 윤이상선생은 세계적으로 이름난 작곡가로서만이 아니라 조국통일과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 적극 이바지한 통일음악가로서 한생을 빛내일수 있었다.

본사기자 리경월

## 통일성업의 길에서 손잡고 나가자고 하시며

조국통일상수상자들중에는 범민련 해외본부 의장이였던 립창영선생도 있다.

주체81(1992)년 4월 립창영선생은 여러 해외교포인사들과 함께 나라의 통일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회합에 참가하기 위하여 공화국을 방문하였다. 해외에서 오래동안 학계, 언론계, 종교계에서 활약한 그로서는 공화국에 체류하면서 느끼는 소감이 남달랐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만나뵙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그가 정중히 올리는 인사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너로한 몸으로 먼곳에서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았겠다고, 선생님과 같